

韓國의 都市—그 美와 醜

金 源

〈서울市立大學教授·工博〉

1. 都市와 傳統美

人類의 歷史는 원래 都市에서 형성, 發展되어 왔다. 人間은 歷史의 흐름에 따라 비록 時代的으로는 다르지만 제각기 당시의 文化를 創造하면서 都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都市의 形成過程이 곧 人類文化의 創造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都市에서는 각기 다른 文化的 背景과 상이한 文化의 共存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都市에서는 古代, 中世 및 近世의 都市文化가 混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都市는 現代機械文明의 所産으로 볼 수 있는 「뉴·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都市文化의 특수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都市의 傳統美란 것도 따지고 보면 都市文化가 어떤 時代的 背景속에서 形成되어 왔는가를 제쳐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西洋의 都市란 거의가 人類文化의 形成과 더불어 生成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유럽의 都市들—특히 이태리, 그리스 등의 都市들은 아직도 古代의 文化와 中世의 遺蹟들이 뿌리깊은 속에 近世와 現代가 서로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佛蘭西의 都市들에서 産業化初期의 重商主義와 絶對君主時代의 都市文化가 짙게 남아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現代産業社會의 自動車交通이 등

장하면서 나타난 郊外都市(suburban towns), 뉴·타운 등의 都市文化가 美國을 中心으로 北 美洲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도 새로운 都市의 藝術性 創造面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都市文化속에서 한 時代에 살다간 都市人들의 文化, 生活습관, 住居패턴 등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記錄에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것을 土臺로 都市에 있어서 保存되어야 할 傳統美를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傳統美란 대개의 경우 物理的 現象(physical elements)으로 표현되기가 일쑤다.

都市가 우리에게 남겨 주는 印象이란 무엇보다 物理的表現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要素가 강하게 풍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거의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미한 要素들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다. 즉 都市의 道路, 街路장식, 싸인판, 建物 등이 近世 都市의 대표격인 파리에서는 視覺的 要素로서 강한 표현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우리 人間에게 親近感을 주기보다는 壓倒感을 주었으나 오늘날 西歐에서 건설하고 있는 뉴·타운에서의 都市要素들은 스케일면에서 壓倒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색채, 資材들의 構成에서도 親近感을 불러일으켜 都市生活에서 安定感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2. 都市와 藝術性

都市를 구성하고 있는 物理的 및 視覺的 要素들로서 道路를 들어 보면 그것이 時代的으로 어떻게 變化해 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당초 人間이 모여 살게 된 都市에서는 道路란 걸어서 가는 사람들에게 기대(expectation)와 신비 그리고 매력을 주었고 情報의 交換, 交易를 통해 都市에 活力을 형성해 왔던 것도 길거리에서였다. 이와 같은 道路의 모습들은 그 모양이 일정치가 아니하며 自然的 地形을 따라 調和를 이룬 가운데 오랜 세월 속에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道路들은 古代都市와 中世都市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近代産業革命과 現代科學文明의 發達로 인해 大都市 속의 道路란 步行, 車輛소통의 機能만을 위주로 計劃 設計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道路의 傳統性, 藝術性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道路란 便利性, 接近性(accessibility)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래 道路가 지닌 역할,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自動車가 다니지 못하는 道路는 現代都市에 있어서는 道路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주변 住宅街에서 버린 쓰레기集荷場이 되기가 심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경을 서울中心地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都市의 건축물도 그 藝術性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古代로마都市에서 보면 公會堂(agera), 神殿(acropolis)을 비롯, 그리스의 forum 등과 같은 都市의 傳統性과 르네상스時代의 都市建築, 道路, 廣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藝術性 등은 現代都市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린지 오래고, 都市의 구성은 美的 감각의 配置보다 機能的 配置에 더 치중하고 있다.

그나마 都市에서 흔적이 남아 있는 傳統性이라든가 藝術性은 오늘날 現代都市의 美的 구성에 있어서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감을 주고 있다. 아마도 그 理由는 그 傳統性과 藝術性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文化에서 調和를 거쳐 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西歐의 都市에서 찾아볼 수 있는 古代, 中世 그리고 現代의 都市要素들이 空間上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都市文化의 一體性(integration)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西歐都市들은 宗教(기독교)의 生活양식에 의해 支配되고 있었기 때문에 教會(church) 건축물을 가운데 하고 각종 都市機能이 結合되어 왔었으며 건축물도 教會를 상징으로 해서 一體感을 이룩할 수 있는 調和性을 전제로 형성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教會의 권위와 신비성, 존엄성에 시각적으로 도전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都市建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一體感유지가 이룩될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비록 建築樣式에서 뿐만 아니라 材料, 장식, 거리, 位置 등에서도 규명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現代都市에서는 건물과 건물간의 건축적 조화, 건물과 周圍건축물과의 조화의 면에서 전혀 一體感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高層빌딩들의 앞뒤, 옆건물거리도 空間上 視覺的으로 調和를 잃고 있는가 하면 高層 APT 群像의 단독住宅들을 보면 「孤獨한 寺院」이나 아니면 「길잃은 羊」의 모습을 보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都市建築美는 한마디로 機能과 經濟性 위주로 設計되어왔기 때문에 建築의 作品이기 前에 所有者의 취향과 욕구를 살려주는 것이 우선되어 왔으며, 經濟性 때문에 傳統性이 유지된 住居地域에 西部의 침입자처럼 우뚝 솟아오른 高層건물들은 異質性을 느끼게 하고 불쾌감이나 拒否感 같은 것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짓고 있는 住宅에서도 그와 비슷한 異質感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 都市住宅들은 특히 單獨住宅의 경우 앞·뒷집들이 옆집들과 住宅의 규모, 스타일, 색채, 자재 등에서 部分的으로는 個性을 지니지만 全體로서는 調和가 안되어 一體感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單獨住宅들이 所有者別로 각기 자기취향, 目的에 맞추어 건축하기 때문에 전혀 全體性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

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都市住宅의 美라기보다 醜에 가깝고 시각적으로도 調和를 느끼기보다 混亂을 가져온다.

3. 産業都市의 美와 醜

오늘날 先進諸國의 都市들은 거의가 古代, 中世 및 近世의 都市文化的 傳統性和 藝術성을 지니고 成長하여 왔지만 産業社會의 都市로서는 그 機能의 能率性, 經濟性이 부합되지 아니하게 됐다.

제 2次世界大戰 이후 급속히 大衆化되기 시작한 自動車交通은 종래의 汽車, 電車 등의 交通手段을 中心으로 計劃해 놓았던 近世都市에게 큰 도전과 시련을 안겨 주었다.

自動車는 輸送의 手段으로서 편리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副作用도 많다. 事故, 交通체증, 都市의 美觀的 누추, 소음, 大氣汚染 등의 問題를 가져다 준 것이다. 英國과 佛蘭西의 都市들은 이들 自動車에서 내뿜는 배기 때문에 市街地의 建築物들이 모두 오염에 시들고 있다. 한 때 藝術성을 지니면서 視覺的 매력에 끌어 왔던 건물들이 이들 오염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道路들 역시 늘어나는 自動車を 수용할 수 없어 都市機能의 限界를 가져 왔다.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都市들이 「都市再開發」을 시행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都市機能의 變化和 構造의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都市再開發이라는 새로운 處方法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종래 금과옥조로 다루어 왔던 都市藝術性 및 傳統性이 經濟性(economy), 能率性(efficiency) 그리고 便利性(accessibility) 등으로 代置되기 시작했다. 세계의 많은 都市에서 再開發을 한 것이 모두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졌으니 傳統性和 藝術성이 오늘날에 잔존하기란 어렵게 되어 都市建築文化가 일대 危機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불도저式 都市再開發에서 남긴 惡名높은 傳統性的 破壞가 그후 지각있는 사람들의 출기찬 노력의 결과로 그 方向이 修正

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都市再開發의 개념에 傳統性和 藝術성을 지닌 都市文化를 保存(preservation)하는 뜻을 포함하게 되어 우리는 地方文化財의 성격을 띤 建築物, 記念物, 遺蹟 등을 保存하여 文化財(landmark)로 指定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都市의 傳統性和 藝術性들이 自然的으로 調和를 이루어 오게 됐던 都市形成期에서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人間의 힘에 의한 破壞를 防止시키고 法的으로 이들을 保存하게 하여 歷史의 共存을 유지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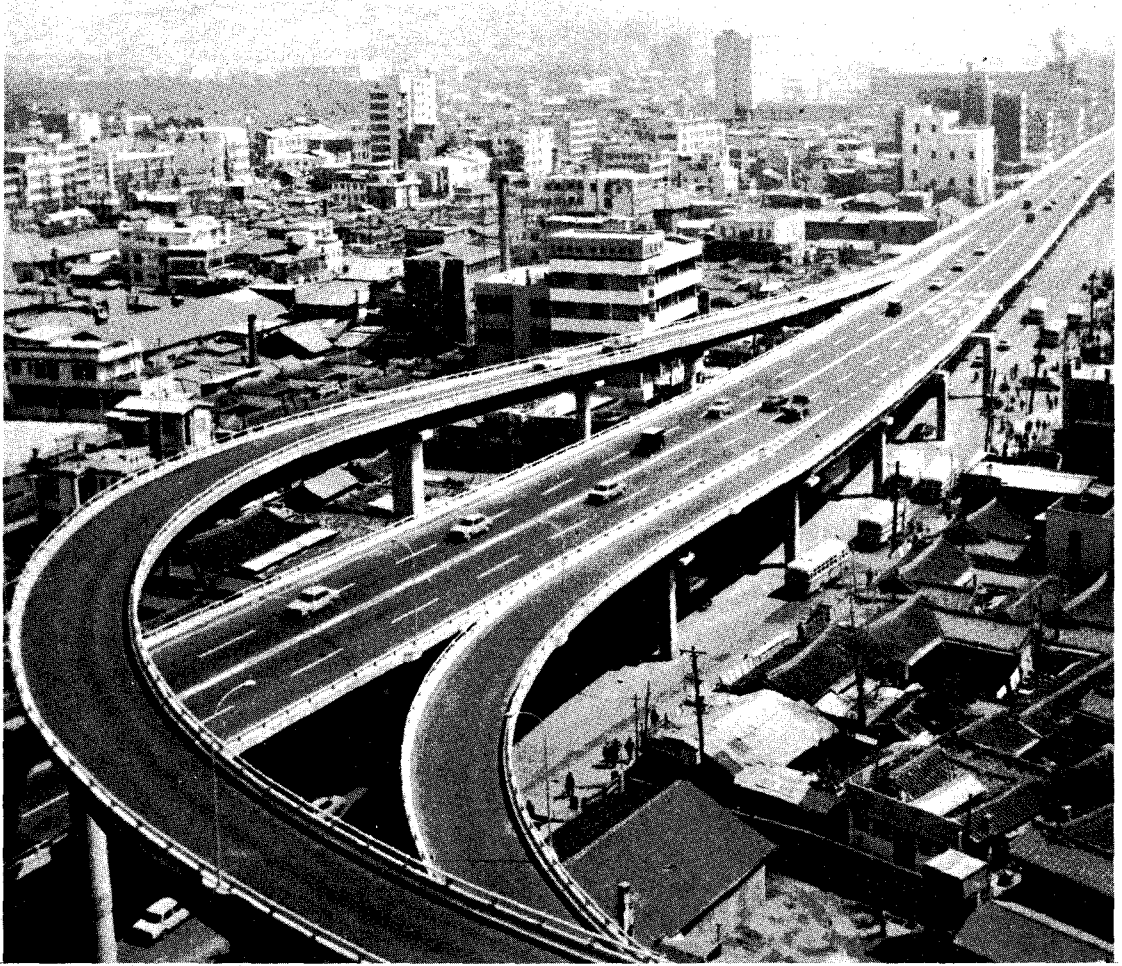
都市再開發事業으로 들어선 高層建物들 속에 외로운 寺院처럼 홀로 남아 있는 文化遺蹟이 오히려 외롭다기 보다 open space와 廣場, 綠地帶, 의자 등 造景의效果를 겸해서 都市人的 休息空間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文化的 保存이 결국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은 외로운 寺院이 아니라 친근감을 안겨다주는 空間施設이 되는 것이다.

都市의 傳統美와 藝術성은 現代都市에 있어서는 都市再開發을 통해 끊임없이 발굴되든가 保存되든가 하며, 때로는 創造되기도 한다. 따라서 都市의 美는 現代的 産業文化와 계속해서 調和를 이루어 가지 아니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都市再開發이란 이렇게 볼 때 都市의 醜를 제거하고 새로운 藝術性和 美를 創造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날 先進諸國의 都市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都心地再開發에서 거의가 自動車文化를 受容하면서 都市活動의 중요한 部分으로서 計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再開發을 통해 地下停車場을 마련하고 交通소통을 위해 道路角을 정리하고 一方通行을 유도하는 것 등은 現代産業都市가 成長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또 再開發을 통해서 步行者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해 路面交叉를 立體化하든가, 都市人들의 메마른 情緒를 길러 주기 위해 open space를 넓게 確保하고 通行人, 車輛들의 方向을 가르쳐 주는 각종 街路싸인판과 步行者에게 의자, 휴지



통을 마련해 주는 등 잘 갖추어진 새로운 都市環境의 創造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都市란 再開發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需要를 받아들여 改造(transformation)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都市의 美란 실로 그와 같은 改造作業을 통해 끊임없이 創造되어지는 것이고, 醜는 그런 改造를 거쳐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도 産業社會의 都市에서는 醜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어느 都市에서는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先進國 都市—특히 美國의 都心地를 보면 再開發을 통해 改造를 하면서 都市의 外的, 視覺

的 美의 創造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社會, 經濟的 要因에 의해 醜의 표본인 都市슬럼地區가 번성하고 있다. 이들 슬럼地區는 都心地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都市의 정상적 活動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더욱 고통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都市의 美는 한편으로 改善, 創造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slum 이라든가, 後進國에서처럼 Squatter 등의 社會的 問題가 나타나서 都市管理上의 어려움을 안겨다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4. 韓國都市의 美와 醜

우리나라 都市는 日帝下에 植民地 기반을 확

보하기 위해 建設된 都市들을 中心으로 형성되어 왔다. 즉 道の 道廳所在地, 郡, 邑, 面所在地 등 行政의 必要性에 따라 日帝가 開發해 놓은 都市들이 우리나라 國土空間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것이 解放, 6·25 그리고 5·16 以後의 祖國近代化란 강한 캐치프레이스 밑에 계속 發展되어 온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都市는 經濟開發의 波及效果로 엄청나게 開發되었고, 어떤 都市는 오히려 그 都市機能이 國土空間상의 의미가 쇠약해져서 침체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서울, 仁川, 富川, 울산, 포항, 구미 등이 前者에 속한다면 金泉, 속초 등이 後者の 都市에 속한다.

이렇듯 都市成長이 平面的으로, 量的으로 擴大되는 동안 內的으로 都市施設의 擴充이나 改善을 통해 質的改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都市의 內的改善이 되지 않는 상태하에서는 都市의 傳統性和 藝術性이 제대로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都市內部空間의 구성이 一體感을 잃게 되어 都市人의 피곤감을 조장시켜 줄 뿐이다.

뿐만 아니라 都市의 外的擴張이 되는 동안 計劃의 接近에 의한 都市設計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都市의 施設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서 앞에 設置한 都市施設과 뒤에 設置한 것들과의 統合性이 결여되고 있다. 서울 都心部에 보면 數없이 設置해 놓은 高架道路, 陸橋들이 交通의 全體的인 흐름의 파악없이 散發的으로 그리고 斷切的으로 設置되어 있어서 利用者에게 混亂과 피곤감을 안겨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都市施設은 확실히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都市再開發은 한편으로는 都市의 美를 새로 創造하는 것이 되지만 잘못하면 그와 같은 都市의 醜를 새로 만들어 내어 都市人들에게 不便을 加重시켜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美의 創造와 藝術性의 신장이 都市空間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것은 우리나라의 都市가 르네상스나 中世의 宗教建築物의 영향을 받은 西歐都市와 다른 背景下에서 形成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西歐의 都市建築物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日帝下의 일이기 때문에 歷史的으로 都市建設의 經驗이 일천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都市空間의 藝術性을 創造하는 熏련을 못 쌓아 온 탓이기도 하다.

部分으로서 全體를 구성하고 一體性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른바 市民정신에 바탕을 둔 都市空間設計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제각기 土地의 所有者가 자기의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해 經濟性, 能率性, 便利性만으로 건축을 해 왔던 패턴도 강했다.

그 결과는 都市建築의 스카이라인이 유지되지 못해서 空間構成이 비효율적이며 시각적으로도 잘 정돈된 印象을 주지 못하고 있다. 프라자, 조선, 프리지던트, 롯데 등 호텔地區를 둘러싸고 있는 中心街의 都市設計를 보면 部分으로서 全體가 구성될 수 없고 게다가 군데군데 이빨 빠진 建物사이의 「空地」가 끼어 있어서 都市空間의 시각을 흐려놓고 있다. 하나 하나의 建物を 놓고 보면 완벽한 建築設計가 되었을지 모르나 이것이 街區(block)를 形成해서 都市美를 創造한다고 볼 때 아직도 都市設計次元에서는 藝術性의 創造가 결여된 채 經濟性의 極大化에 더 치중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經濟性을 뒤로 미루고 都市設計的인 측면에서 藝術性을 살려 既存의 都市傳統性和 調和를 이룬 스카이라인과 都市美를 造成할 수는 없을까? 아마도 우리나라 國力の 伸張이 都市發展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都市再開發과정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都市를 建設해야 할 것은 자명한 논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韓國都市들은 朝鮮時代, 日帝時代와 解放後 혼란기 등의 文化的遺産이 함께 共存하고 있기 때문에 都市再開發을 통해 발굴되어야 할 것과 保存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除去되어야 할 都市의 醜도 그만큼 많다.

都心部에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中世의 迷路, 나지막한 古家, 自動車가 지나갈 수 없는 협소

한 道路 등이 都市美觀上으로 지저분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再開發을 통해 깡그리 들어낼 수만은 없다. 傳統性을 살리면서 現代的 都市의 藝術性을 부여할 수 있는 都市設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都市의 内部空間에서는 아직도 都市設計를 통해 藝術性을 만들어 낼 素地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都市가 갖고 있는 傳統性은 그런 點에서 오히려 藝術創造의 資源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都市들은 지나치게 物量팽창에 치중하다 보니 傳統性이 모두 파괴되었고 그렇다고 西歐都市처럼 藝術的 감각도 결여해 놓지 못한 어정정한 都市像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外國인들이 韓國의 대표적 都市-서울을 와서 보고는 都市人이 生活하기에 극히 不便하게 計劃된 것과 「韓國의 美」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에 썩 失望하기도 한다.

더우기 우리나라 各地方의 都市들조차 서로 特色을 갖춘 印象的인 視覺的 差異를 찾아볼 수 없는, 모든 都市가 하나의 作品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計劃家가 지나치게 經濟的, 能率性과 便利性에만 급급한 나머지 都市를 하나의 藝術創造의 場으로 보지 못했던 단견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지난 몇년 동안 우리나라 都市計劃에 있어서도 큰 革命을 가져온게 있다. 이제까지 都市再開發이나 都市開發에서 都市設計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都市建築美와 주변의 景觀을 改善해서 視覺的 美를 높이자는 目的下에 필요한 地區에 대해서는 「都市設計地區」를 指定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70年代後半부터 각도시들이 2000年代의 長期都市計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專門家들의 끈질긴 주장이 표면화되었고, 그후 80년대에 들어 政府에서 이를 制度化시켜 놓았다. 서울은 乙支路, 太平路, 江南의 테헤란路 등이 그와 같은 취지하에 都市設計地區로 指定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 地區內의 建築物는 일단 都市設計가 되기 전에는 許可를

받을 수 없고 都市設計속에서 제시된 基本方向을 받아들여 건축물의 높이, 부피, 資材, 색채 등이 모두 規制를 받게 된다.

비록 이 都市設計의 方法이 各土地所有主나 事業者에게는 利潤極大化에 악영향을 줄지 모르나 앞서 지적했듯이 部分으로서의 全體, 個個建築物로서의 街區의 都市美가 이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都市들도 視覺的으로 藝術都市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1980年代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都市設計」地區를 指定할 수 있게 됐다는 한가지 事實만으로도 都市의 內的 改善을 이룰 수 있는 時代로 지칭해도 무방할 것 같다.

5. 맺는 말

都市의 美는 傳統性에서 찾아야 하며 傳統性은 都市發展을 거듭하는 過程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都市에 남아 있는 古代, 中世 그리고 近世의 文化要素들이 잘 정돈되어 調和를 이루는데서 傳統性과 藝術的 美가 더 빛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都市開發과정에서 그와 같은 文化的 要素를 되도록 살려서 保存하고 새로운 都市環境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면 都市는 文化的 共存場이 될 것이다. 西歐都市에서 보면 그러한 歷史의 對面이 都市空間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이 外觀上으로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해 보이며, 中國人들의 불결한 生活때문에 都市의 醜로 보일지 모르나 이곳은 뉴욕의 都市活力素로서 큰 觀光資源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오히려 再開發에서도 保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中國人村(프라자호텔地區)을 經濟的 利潤을 위해 政策的으로 파괴 가면서 이들을 撤去해 가고 있는 것이다.

都市의 美는 西歐的인 基準에 의해 평가하지 말고 우리 固有의 文化的 遺産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함께 가꾸어지는 方向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